2018년 7월 11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다우, 어닝시즌 앞두고 4 일 연속 상승

러셀 2000, 장 중 사상 최고치 경신 후 차익실현 매물 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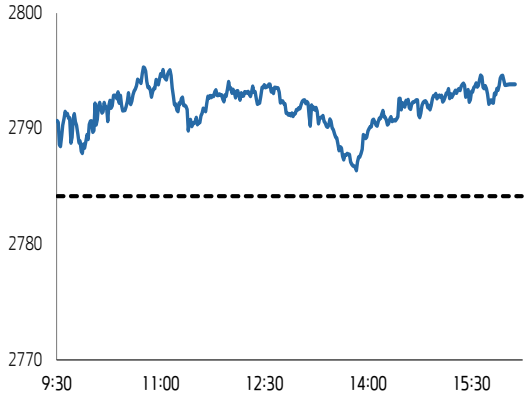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유럽증시는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인피니온(+1.05%) 등 일부 수출주가 상승 주도. 다만, 최근 상승을 이끌었던 코메르츠방크(-1.38%) 등 금융주 및 글렌코어(-2.48%) 등 원자재주가 부진하며 상승폭 제한. 미 증시는 장 초반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심리 개선 지속되며 상승 출발. 그러나 오후 들어 일시적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어닝시즌을 앞두고 방향성 없이 업종별 차별화 장세속에 상승 마감(다우 +0.58%, 나스닥 +0.04%, S&P500 +0.35%, 러셀 2000 -0.53%)

미 증시의 특징은 ①중소형주가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 ②금융주 하락 ③실적 개선 발표된 종목 상승 ④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요약 할 수 있음. 중소형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로는 주로 높은 미국 내 매출 비중에서 찾을 수 있음. 이는 무역분쟁 우려 및 달러 강세 관련 리스크와 관련이 별로 없어, 격화되는 무역 분쟁의 수혜주로 인식된 데 따른 결과로 추정.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연초 이후 현재까지 대형주에서 50 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되었으나, 같은 기간 소형주로는 90 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발표

한편, 금융주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30bp 미만으로 축소되자 향후 대출 증가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하락. 이로 인해 실적 개선 가능성은 높으나, 주가는 부진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매물 출회. 다만, 펩시코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4.76% 상승 하는 등 2 분기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감 또한 여전한 것으로 추정. 이런 가운데 오후 들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나스닥의 경우 한 때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등 변화를 보였음.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기는 하지만, 어닝시즌을 앞두고 상승폭이 컸던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매물이 출회되는 등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진 하루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294.16	+0.37	홍콩항셍	28,682.25	-0.02
KOSDAQ	813.19	+0.61	영국	7,692.04	+0.05
DOW	24,919.66	+0.58	독일	12,609.85	+0.53
NASDAQ	7,759.20	+0.04	프랑스	5,434.36	+0.67
S&P 500	2,793.84	+0.35	스페인	9,889.30	-0.38
상하이종합	2,827.63	+0.44	그리스	755.33	+0.74
일본	22,196.89	+0.66	이탈리아	22,057.30	+0.1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펩시코(+4.76%)는 개선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코카콜라(+1.28%)도 동반 상승 했다. 한편, AT&T(+1.09%), 버라이존(+1.18%) 등 통신주와 P&G(+2.52%) 등 필수 소비재 업종은 모건스탠리가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한데 힘입어 상승 했다. 마이크론(+2.63%)은 서버 D램에 대한 매출 증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대감이 높다며 JP모건이 낙관적이 전망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브로드컴(+1.27%), TI(+1.46%), 인텔(+0.58%)과 AMAT(+0.47%), 스카이웍(+1.20%), N비디아(+1.60%) 등 반도체 제조및 장비 등 관련주도 동반 상승 했다. 한편, 테슬라(+1.24%)는 중국에 한해 50만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건립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 했다.

한편, 엑손모빌(+0.92%), 셰브론(+1.27%), 코노코필립스(+1.04%) 등 에너지주는 국제유가 상승과 이란 제재 일부 면제 가능성이 제기되자 상승 했다. JP모건(-0.62%), BOA(-0.76%), 씨티그룹(-1.03%), 골드만삭스(-0.50%) 등 금융주는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된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페이스북(-0.59%), 알파벳(-0.01%), EBAY(-2.29%), 넷플릭스(-0.80%) 등 기술업종은 모건스탠리가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16%	대형 가치주 ETF	+0.37%
에너지섹터 ETF	+0.97%	중형 가치주 ETF	+0.16%
소매업체 ETF	-0.72%	소형 가치주 ETF	-0.40%
금융섹터 ETF	-0.37%	배당주 ETF	+0.47%
기술섹터 ETF	+0.24%	변동성 ETF	-1.97%
소셜 미디어업체 ETF	-1.46%	대형 성장주 ETF	+0.22%
인터넷업체 ETF	-0.50%	중형 성장주 ETF	+0.06%
리츠업체 ETF	+0.49%	소형 성장주 ETF	-0.60%
주택건설업체 ETF	-0.17%	신흥국 고배당 ETF	-0.11%
바이오섹터 ETF	-0.17%	신흥국 저변동성 ETF	-0.09%
헬스케어 ETF	+0.38%	하이일드 ETF	0.00%
곡물 ETF	-0.56%	물가연동채 ETF	-0.15%
반도체 ETF	+1.08%	Long/short ETF	+0.2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72.13	+0.74%	+3.49%	+0.90%
소재	372.55	+0.84%	+2.92%	-1.96%
산업재	619.48	+0.34%	+2.69%	-3.45%
경기소비재	890.26	+0.22%	+2.14%	+1.57%
필수소비재	540.78	+1.26%	+2.75%	+3.18%
헬스케어	1,006.33	+0.41%	+3.82%	+2.34%
금융	451.21	-0.37%	+1.61%	-2.73%
IT	1,259.93	+0.23%	+2.38%	+0.31%
통신	150.87	+1.13%	+1.62%	-0.16%
유틸리티	263.83	+0.98%	-0.59%	+8.06%
부동산	204.54	+0.48%	+1.81%	+3.7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지수보다는 종목에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15% MSCI 신흥 지수도 0.23%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도(-210 계약)에도 불구하고 0.30pt 상승한 297.2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3.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증시가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은 가운데 상승 했으나, 어닝시즌을 앞두고 상승폭이 제한되는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다. 한국 증시도 최근 3 일 연속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에 대해서는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여전히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로 인한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 이란 제재와 관련 면제를 요청한 일부 국가들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 했다. 미 정부는 그 동안 어떤 예외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 했으나, 일부 완화된 입장을 밝힌 점은 주목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대외 강경 외교정책이 점차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대외 외교 정책의 축은 ①무역분쟁 ②북한 ③이란 등이 주요한 부분인데, 이란과 관련된 부분이 완화된 점은 향후 무역분쟁과 북한 관련 온건한 정책 발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한국 증시는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글로벌 증시의 특징처럼 일부 차익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안 지수 변화보다는 종목과 업종에 주목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기업 낙관지수 예상치 상회

미국 6 월 소기업낙과 지수는 전월(107.8) 보다 둔화된 107.2 로 발표되었다 다만, 예상치(105.6) 보다는 개선 되었다.

미국 5 월 구직자수는 663 만 8 천건으로 전월(684 만건) 보다 감소했으나, 시장 전망치(658 만 3 천건) 보다 개선 되었다.

독일의 7 월 ZEW 경제전망 지수는 전월(-16.1) 보다 둔화된 마이너스(-)24.7 로 발표 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신흥국 환율 달러 대비 강세

국제유가는 노르웨이 시추관련 노동자가 파업을 하자 생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상승 했다. 더불어 이란 국영 석유 회사 또한 미국 정부가 원유 수출을 제재 하면 수출량이 20%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리비아의 국영 에너지 회사의 생산량이 반절로 줄었다는 발표에 이어 이러한 이란 이슈와 노르웨이 노동자의 파업으로 시장에 공급 둔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 원유 수출 관련 일부 면제 가능성을 제기하자 상승 폭은 제한 되었다. 한편, EIA 가 단기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6 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5 월에 비해 하루 10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달러지수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폭을 확대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영국 보리스 존슨 내무장관을 비롯한 2 명의 장관이 사임을 하자 소프트한 브렉시트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일 하락한 이후 안정을 찾았다. 남아공 란드화와 멕시코 페소화 등 신흥국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다만, 역외 외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한편, 3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2.51 배로 지난 12 개월 평균인 2.91 배를 하회하는 등 수요가 부진 했던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경제지표도 비록 전월 보다 둔화되었으나 예상을 상회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5% 하락 했으나 철근은 0.73%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4.11	+0.35	+0.23	Dollar Index	94.139	+0.07	-0.48
브렌트유	78.86	+1.01	+1.41	EUR/USD	1.1745	-0.05	+0.75
금	1,255.40	-0.33	+1.10	USD/JPY	111.27	+0.38	+0.61
은	16.087	-0.32	+1.59	GBP/USD	1.3274	+0.11	+0.61
알루미늄	2,090.00	-1.46	+0.48	USD/CHF	0.9923	+0.08	-0.02
전기동	6,321.00	-1.08	-2.62	AUD/USD	0.747	+0.04	+1.14
아연	2,655.00	-1.85	-4.80	USD/CAD	1.3115	+0.06	-0.18
옥수수	360.75	-1.70	+0.49	USD/BRL	3.7998	-1.89	-2.50
밀	492.00	-3.15	+2.45	USD/CNH	6.6323	+0.14	-0.50
대두	871.50	-0.06	+0.23	USD/KRW	1116.00	+0.34	-0.24
커피	114.80	-0.22	+2.82	USD/KRW NDF1M	1113.55	+0.09	-0.07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67	+1.10	+3.65	스페인	1.275	-1.50	-1.30
한국	2.550	-0.70	-2.70	포르투갈	1.748	-2.30	+2.20
일본	0.045	+0.50	+1.20	그리스	3.822	-2.00	-10.50
독일	0.320	+2.00	+2.60	이탈리아	2.667	+0.50	+3.60